



2019년 7월 7일(제936호) 연중 제1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제자들의 무전여행”

신학생 시절, 여름 방학이 되면 홀로 무전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빈털터리 신세가 불편도 하지만 왠지 더 자유로웠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전 여행을 무사히 끝나치고 나면, 언제나 행복한 확신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 이 세상은 여전히 살 만하구나!’

보성의 작은 마을을 지날 때의 일입니다. 벌써 날이 어둑해져 잠자리를 청하는데, 젊은 이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무전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니 반갑게 맞이하며 사뭇 마을회관 대신 당신 집에서 저녁도 함께 먹고 어린 아들과 한방을 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날 먹었던 후한 식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병어회’와 ‘국화주’는 ‘인생 음식’, ‘힐링 푸드’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과 놀다 잠이 들었는데, 몸도 마음도 큰 평화와 위로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무전여행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심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낯선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는 선교적 열정을 키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앞서 일흔두 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어느 고을에 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에 들어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하시지요. 요즘으로 치면 무전여행을 보내신 게 아닐까요? 그 여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저 베푸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스펙으로 무장하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삶은 외롭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어색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낯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기쁜 소식’을 지치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이사 66,14)



윤홍식(토티스 이루니스) 신부
별최(5시어)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66,10-14ㄷ

회 답 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 시 갈라 6,14-18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 10,1-12.17-20

영 성 제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유중성 마태오



성인명: 유중성 마태오 (柳重誠 Matthew)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84?-1802년

‘완석’(完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유중성(柳重誠) 마태오는 전라도 전주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의 장남이던 부친이 35세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그는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는 작은 아버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인 유중철 요한과 유문석 요한은 그의 사촌 형제들이다.

1801년에 박해가 일어나자 유 마태오의 집안에서는 유 아우구스티노와 유 요한이 먼저 체포되었고, 그는 9월 중순 무렵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다른 친척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혔다. 그의 어머니는 체포된 지 얼마 안 있어 석방되었다. 그러나 유 마태오는 사촌 형수인 이순이 루갈다 등 다른 친척들과 함께 순교를 약속하면서 굳게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유 마태오와 친척들은 유배형을 받고, 함경도 회령으로 떠나게 되었다. 유 마태오는 친척들과 유배지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장이 국법에 따라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유배를 보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전주 감사는 그들을 다시 잡아 오도록 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후 유 마태오는 다시 감사 앞에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고,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였다. 감사는 결국 조정에 사형 판결을 요청하였고, 얼마 뒤에 임금의 윤허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유중성 마태오는 1802년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친척들과 함께 ‘숲정’이라고 불리는 전주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의 나이는 약 18세가량이었다. 당시까지 그는 결혼하지 않았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변화란

변화가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편하게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

아니,
 냉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곳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때.

내가 변화했다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깨끗한 것, 편한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제단화



한스 멤링, 1479년경 제작
오크파넬 위 유화, 중앙제단화 173.6x173.7cm
양옆 제단화 각 176x78.9cm / 브뤼헤 상요한병원, 벨기에

이 그림의 놀라운 점은 디테일에 있다. 세례자 요한의 뒤쪽 기둥 상단 부분에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자카리아의 이야기와 성인의 탄생이 조각되어 있고, 뒷배경의 상단에는 광야에서 가르치는 세례자 요한이, 그 아래에는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또 오른쪽 배경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뒤 시체가 불에 태워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병사에게 끌려가는 방향은 왼쪽인데, 왼쪽 패널에(다음 주에 소개될) 세례자 요한의 참수 장면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하여 그림을 그려내었고, 내용상으로 연관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편의 세례자 요한은 독이든 성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중세의 성인집 황금전설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도 요한이 이 잔을 받아들자 독이 뱀의 모습을 하고 잔에서 빠져나갔다는 전설에 기반한다.

사도 요한 뒤로는 이 당시 정부에서 병원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하사한 와인 특수 독점권과 강에서의 어업 조업권을 암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화가는 그 당시 모습과 성경 말씀과 성인들의 생애와 관련된 전설을 적절히 배합하여, 이 모든 일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4주일: 필승 박양신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7월 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